

화순교육지원청, '화해 조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10명 대상...관계회복 바탕으로 학교 내 갈등 해소

학교 폭력 사안처리 절차·실제 사례 중심 진행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2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실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관련학생 간 관계회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화해조정지원단 1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2019. 8. 일부개정)의 올바른 이해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및 화해조정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화순교육지원청 화해조정지원단은, 회복적생활교육 전문가과정을 이수한 교사

및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지역사회에서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 학교의 요청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전담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사용의 증가에 따른 사이버상의 폭력으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피·가해자가 되어 갈등상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학교 차원에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육지원청 화해조정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조정을 통한 관계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화해조정지원단은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으로 갈등 관계가 있는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화해조정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19 대응 수칙을 준수하여 6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이버 상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칙 및 올바른 언어사용과 사이버 예절에 대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화할 수 있는 집단상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서로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 등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집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친구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친구들과 오해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었다며, 마음이 후련하다는 소감과 앞으로는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말과 태도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각오를 발표했다.



여민구 학교지원센터장은 “학생들의 교육적 선도 및 피·가해학생들의 관계회복 기회가 확대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또 폭력의 위험성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화해조정지원단 지원은 물론, 회복적생활교육이 전제학교에 확산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보성교육청, 코로나 19 대응 매뉴얼 교육 및 모의훈련

직원들 직접 역할 분담해 모의훈련 실시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청직원들을 대상으로 28일 화요일에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확진자가 관내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일 경우, 확진자가 보성교육지원청 내 직원일 경우, 확진자가 학부모 및 보성군민일 경우라는 세 가지 가정하에 매뉴얼이 만들어져 청 직원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관내 학교 학생이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직원들이 직접 역할을 분담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총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익히기 위해 진지하게 매뉴얼 교육 및 모의훈련에 임했다.

이번 교육 및 모의훈련을 진행한 재난총괄 담당인 김영미 행정팀장은, 확진자

가 발생했을 때 우리청 직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일상분란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하며, 오늘 매뉴얼 교육 및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대응 체계 및 대응 능력을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장(백남근)은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직원이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얘기하며 “보성교육지원청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를 이겨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전남교육청, 원도심학교 교육력 강화 모색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 있는 초·중 교원 17명 협의회 구성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농어촌 작은학교에 이어 도시 지역 원도심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8일 오후 청사 5층 소회의실에서 원도심학교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원도심학교 교육과정 연구회’ 협의회를 갖고 원도심학교 교육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연구회는 원도심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초·중 교원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 31일(금)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협의회를 가졌다.

원도심학교란 전남 도내 5개 시 지역에 있는 학생 수 61명 이상 300명 이하의 도심속 작은학교로 초 58개교, 중 17개교, 고 15개교 등 총 90개 교에 이르며, 매년 학생

수 감소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원도심학교 중 초 43교, 중 10교, 총 53개 교는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특색 및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지만 강한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원도심학교 교육과정연구회’는 학교 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원도심학교 교육활동 중심 운영방안 및 교육력 강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자기만의 고유한 빛깔을 찾을 수 있도록 실행 연수, 컨설팅 등 지원체제 구축에 나섰다. 또한, 연구회 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향후 원도심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순천대 ‘전남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전국 최다 선정

전남도, 신규 인증사업자 30개소 발굴·최종 확정 전국 1위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신규 30개소를 추가하며, 전국 11개 지역 센터 중 최다 발굴 성과를 거뒀

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심사 결과, 전남도가 신규 인증사업자 30개소를 발굴·최종 확정하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전체 1,774개소 중 전남 사업자가 289개소(16.3%)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이 262개소(14.8%)로 뒤를 이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심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한다. 심사는 농촌융복합

산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영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기초 역량과 산업기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지역사회 및 자원과의 연계·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각 심사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농림부에 추천을 올리며 최종 검토·승인된다.

신규 인증사업자로 확정되면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전남농촌융복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홍보, 1:1 경영컨설팅, 안테나숍·납도장터·홍소평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원·교습소에 방역물품 지원

지원금 2억 원...비말차단용 마스크 지원·배부 예정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광주시청의 긴급지원을 받아 전체 학원 및 교습소(4,744개)에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역물품 지원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학원의 학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교육청의 지원 요청에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광주시청의 지원금 2억 원은 일선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학

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한 후 택배서비스를 통해 전체 학원 및 교습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시청이 방역물품의 긴급지원을 결정해준 만큼 학원이 코로나19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지원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살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